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2012. 9

Manna of Choonghyun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역대하 · 마가복음
구약예배 · 대학청년부 GBS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주님의 교회 믿음의 전진

● Contents

9 매일성경묵상 역대하 7장

12 1과 이것은 내 몸과 나의 피라

20 매일성경묵상 역대하 8장 ~ 역대하 13장

28 2과 근거 없는 두려움

36 매일성경묵상 역대하 14장 ~ 역대하 19장

44 3과 무덤에 가신 예수님

52 매일성경묵상 마가복음 1장 ~ 마가복음 6장

60 4과 감옥에서의 부흥

68 매일성경묵상 마가복음 7장 ~ 마가복음 12장

76 5과 벨릭스 앞의 바울

『중현의 만나』는

가정예배 · 구역예배 · 대학청년부 GBS를 돕기 위해 중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9

September 2012

주 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2 제6차 성찬식	3 역대하 8장	4 역대하 9장	5 역대하 10장
9 교회설립기념주일 (가족연합예배) 교회설립기념 특별찬양예배	10 역대하 14장	11 역대하 15장	12 역대하 16장
16	17 마가복음 1장	18 마가복음 2장	19 마가복음 3장
23	24 마가복음 7장	25 마가복음 8장	26 마가복음 9장
30			

October

1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역대하 7장
6 역대하 11장	7 역대하 12장	8 역대하 13장
13 역대하 17장	14 역대하 18장	15 역대하 19장
20 마가복음 4장	21 마가복음 5장	22 마가복음 6장
27 마가복음 10장	28 마가복음 11장	29 마가복음 12장

교회 주요 일정

9월 2일

제6차 성찬식

9월 9일

교회설립기념주일(가족연합예배)

교회설립기념 특별찬양예배

나의 주요 일정

- ❶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❷ 김성관 위임목사님을 복음의 나팔로만 사용해 주시고, 십자가만을 전하는 후임 당회장이 청빙되도록 교회 위에 은혜를 베푸소서.
- ❸ 충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 ❹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❺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 ❻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 ❼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가 민족 복음화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시고, 참석한 교회들이 십자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 ❽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❾ 충현교회의 재단들(유지, 동산,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시설 공사 및 양로원, 함양충현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 ❿ 피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딤후 2:3)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교회, 믿음의 전진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교회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있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십자가의 능력만이 유한한 세상을 지배하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성령의 열매는 맺힐 것이며,
참된 부흥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고, 세상이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전진을 기대합니다.

2012년 9월을 맞이하며 유이문화사 김성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매일성경묵상

가정예배 · 구역예배 · 대학청년부 GBS

HOLY BIBLE



그러나 너희가 만일

1

토요일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은 불을 내려 번제물들을 사르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가득하게 하였으며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은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올렸드렸습니다(1~3절). 이스라엘 곳곳에 모인 백성들과 솔로몬은 7일 동안 낙성식을 드렸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였습니다(4~10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삶의 깊고 절망스러운 곤경에 처하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면 죄를 용서하시고 땅을 고쳐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11~18절).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심판하셔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영광스러운 성전조차 모욕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19~22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지키면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이 성전을 버릴 것이며, 모든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완벽하게 지킨 왕은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함에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을 지키려다가 결국 지키지 못하고 재앙을 받을 것이 뻔함에도 포기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을 받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손들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알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그분을 얼마나 자주 찾으십니까? 때 순간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
찬송가 440장

묵상노트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대하 7:19)

But if you turn away and forsake the decrees and commands I have given you and go off to serve other gods and worship them(2Chr. 7:19)

• 율례와 명령(19절) :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 나라의 법도에 대한 충성이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단 한순간도 내가 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② 피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딤후 2:3)이 되게 하소서.



“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

저는 충현교회에서 유아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줄곧 충현교회를 다닌 것은 아닙니다. 집이 수유리인데 어렸을 때에는 충현교회까지 왕복 3시간이나 되는 거리가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만큼 너무나도 멀게 느껴져서 집 근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한 살 두 살 먹을수록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충현교회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충현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지금 기억에도 초등부 찬양이 너무 좋았고, 국수도 맛있었습니다. 반 선생님과 친구들, 심지어는 집에 갈 때 지하 주차장 TV에서 흘러나오는 찬양도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샌가 충현교회의 모든 것이 점점 좋아져 결국 지금까지 우리 교회만 줄곧 다니게 되었습니다.

중등부, 고등부가 되어서 지하철을 타고 왔다갔다 하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고2가 되면서 학생회 임원이 되고, 충현음악아카데미까지 하다 보니 일주일에 4번씩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토요일과 주일은 아침에 갔다가 밤에 집으로 돌아오게 되니 학교 공부와 실기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은 평일뿐입니다. 그리고 만날 교회만 가느냐며



핀잔을 주는 친구들, 부담스러운 교통비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나지만 그것은 한순간일 뿐입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저 자신을 드린 만큼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십일조처럼 아깝지 않습니다. 공부는 언제 하냐며 학교 친구들과 어떨 때는 선생님까지 걱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만큼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 실기 연습을 하고 지하철 안에서 공부하는 등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많이 공부하게 됩니다. 저의 우선 순위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날마다 저에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십니다. 주님을 예배함이 저의 힘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저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천국에 제 상급이 차곡차곡 쌓일 것을 생각하니 더욱 기쁩니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충청교회가 좋습니다.

조아래(고등부)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2 주일

3 월요일

☐ 역대하 8장

4 화요일

☐ 역대하 9장

5 수요일

☐ 역대하 10장

6 목요일

☐ 역대하 11장

7 금요일

☐ 역대하 12장

8 토요일

☐ 역대하 13장

1

이것은 내 몸과 나의 피라

This Is My Body And This Is My Blood

| 초점 |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라

| 찬송 |

찬송가 232장 유월절 때가 이르러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변서

| 본문 | 마가복음 14:22,24

²²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²⁴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나의 피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난 2,000년간 교회사에서 큰 논쟁을 일으켜 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초기의 초대 교회에서는 이 말씀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 성만찬에 대한 주장들을 정리해 보십시오.

- 로마교회의 화체설 _____
- 루터파의 공재설 _____
- 쾰링거의 기념설 _____
- 칼빈의 영적 임재설 _____

성만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찢기신 살,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찬식에 사용되는 요소들이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경을 통해 살펴봅시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유월절의 떡

예수님께서 떡을 취하사 떼어 축사하시며 “이것은 나의 몸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떡은 유월절의 떡이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또 그 후로도 이 떡은 십자가 상에서 죽으신 주님의 몸을 상징하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막 14:22

유대인들이 지켰던 유월절 식사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죽여 살을 먹고, 피는 문설주에 뿌리라고 명하셨던 출애굽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문설주에 있는 피를 볼 때 죽음이 넘어갈 것이며, 그 집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의 의미를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 유월절은 어떤 날이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유월절의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피만이 죄를 덮음으로 구원을 주십니다. 유월절 축제의 제물이 그러했듯, 주의 만찬의 떡과 잔 또한 우리를 속량하시려 행하신 일을 기억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식탁에서 대하는 떡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유월절의 피

유월절 밤의 이야기 속에서 피는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구약성경을 통틀어서 구속은 항상 피를 통해서였습니다.

레 17:11 _____

막 14:24 _____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동물의 피를 통하여 일시적으로 속죄 받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죄인들의 영원한 속죄를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해 신약성경은 피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합니다.

롬 5:9 _____

롬 3:25 _____

행 20:28 _____

주의 식탁에서 우리가 마시는 잔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기억나게 합니다. 이 피는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합니다.

새 언약의 잔

그리스도께서는 잔을 취하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전 11:25)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 역시 중요합니다. 이 잔은 단지 포도주가 담긴 그릇을 나타내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잔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성만찬의 잔의 의미를 간단히 정리해 보십시오.

구약성경에서 잔을 마신다는 표현은 주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언급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 잔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그 잔을 취하시며 울부짖으셨습니다.

사 51:17

※ 마태복음 26:39,42,46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8:9).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은 교리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 속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나누는 유월절의 떡과 잔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새 언약의 잔이 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의 만찬으로 나와서 깊은 감사와 참된 신실함으로 떡과 잔을 취하십시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기억하십시오.

고전 10:16~17 _____

고전 11:27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매 순간 기억하게 하소서.
- ②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좁고 험한 길을 걷게 하소서.
- ③ 총현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흥하게 하소서.

[illegible]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blue or grey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is no handwriting or printed text on the paper.

※ 설교 중에 받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으신 성도님은 간증문을 써서 <주간충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 552-8200(# 342, 348) / E-mail. psalms1715@naver.com

건축하고 건축하고

역대하 8장
찬송가 484장

묵상노트

솔로몬은 여호와와 성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친 후에, 백성의 성읍을 확장하고 재건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백성들의 거주지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전쟁으로 빼앗은 땅에도 많은 건축물들을 남겼습니다(1~6절). 그는 가나안 족속들을 노예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스리게 하고 노역을 시켰습니다(7~10절). 또한 그는 모세의 명령에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왕의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않고 지켰습니다. 모든 규례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자 여호와를 향한 모든 성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다고 선언합니다(12~16절).

솔로몬은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건축에 매달렸습니다. 또한 견고한 성읍을 세우기 위해서 건축하고 또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이 그토록 건축에 열심인 것은 건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더욱 굳건히 세울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솔로몬은 노년에 이르러서 기록한 전도서 1:2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처럼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나니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모든 것이 의미 없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난다면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는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을 받아 죽으신 십자가의 현장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세상의 것이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 오빌(18절) : 금과 백단향 나무와 보석의 산지이다.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다. 인도, 아프리카, 남아라비아 등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또 광야에서 다드몰을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대하 8:4)

He also built up Tadmor in the desert and all the store cities he had built in Hamath. (2Chr. 8:4)

기도제목

- ① 세상의 헛된 것들이 아닌, 십자가와 관계 맺는 삶이 되게 하소서.
-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스바 여왕은 실제로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다” (5절)라며 감탄합니다(1~7절).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넘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금과 향품과 보석을 솔로몬에게 바쳤고, 왕도 여왕에게 답례합니다(8~12절). 왕국에는 솔로몬이 거둬들인 세 금과 무역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은 물론, 다른 나라 왕들로부터 받은 은과 금들이 가득하였습니다(13~21절). 이웃의 많은 왕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들으려고 예물을 가지고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은은 돌 같이 흔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22~28절). 그러나 이러한 솔로몬도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 만에 다윗의 성에 장사되었고, 뒤를 이어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29~31절).

13절을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육백육십육 달란트요”라고 말하는데, 금 육백육십육 달란트가 대략 사천오백억 원에 해당되는 액수임을 생각한다면 솔로몬은 매년 엄청난 액수를 세금으로 거둬들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무역하는 상인들과 주변 나라들이 바치는 조공까지 계산한다면 솔로몬의 재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정도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을 부자가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된 것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부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생명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습니다.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재물로 살아가는 인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역대하 9장
찬송가 370장

묵상노트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육백육십육 달란트요(대하 9:13)

The weight of the gold that Solomon received yearly was 666 talents. (2Chr. 9:13)

• 금 육백육십육 달란트(13절)
○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금 23톤의 무게이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 ① 재물을 위한 삶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② 출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역대하 10장
찬송가 426장

묵상노트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하는 조건으로 솔로몬이 짐 지운 힘든 노동과 멍에를 가볍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1~4절). 르호보암은 원로들과 자신의 젊은 신하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의논합니다. 원로들은 이 백성을 후대할 것을 권면하지만, 젊은 신하들은 오히려 아버지의 멍에보다 더욱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할 것을 권합니다(5~11절). 약속대로 삼 일 후,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을 때 그는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다스릴 것을 선포합니다(12~14절). 르호보암의 말에 화가 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집을 배반하고 르호보암이 보낸 감독을 돌려 쳐 죽였습니다. 이에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도망하게 됩니다(16~19절).

르호보암의 실정으로 인해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데, 다윗 집안을 중심으로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이 세워지고, 북쪽에는 나머지 10개 지파가 모여 북이스라엘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배반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다의 입장에서야 북이스라엘의 배반이지만,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10개 지파가 모여 있기에 자신들이 더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다의 손을 들어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는 기준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이나 우리의 인격과 됴됨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정당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서의 옳고 그름을 잘 따짐으로 주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직도 자존심으로 자기 명예와 옳음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대하 10:19)

So Israel has been in rebellion against the house of David to this day.(2Chr. 10:19)

• 여로보암(12절) : 솔로몬 당시 공사 감독관이었으나,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을 연유로 솔로몬의 암살 계획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하였다(개왕상 11:29~40).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기도제목

① 옳고 그름을 주장하며 자신의 명예를 찾으려고 애쓰지 않게 하시고, 그저 죄인임을 고백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을 복음의 나팔로만 사용해주시고, 십자가만을 전하는 후임 당회장이 청빙되도록 교회 위에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역대하 11장
찬송가 420장

묵상노트

르호보암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왕권을 되찾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해서 르호보암의 계획을 막으십니다(1~4절).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자신의 성읍들을 견고하게 방비했습니다(5~12절).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우상을 만들고 친히 제사장들을 세우는 것에 반기를 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따라 르호보암에게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13~17절).

12지파 중 10지파가 자신을 배신하고 다 떠나버린 상황에서 르호보암은 군사를 모집하여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막으십니다. 우리는 신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 짓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자기의 분노, 어떤 복수심, 자존심, 명예 회복 등을 위한 것임에도 마치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인 양 포장해서 사람들을 끌어 모읍니다. 그러나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지만,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된 죄인의 속성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6:28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29절)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명예와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주님을 믿기 바랍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십팔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대하 11:1)

When Rehoboam arrived in Jerusalem, he mustered the house of Judah and Benjamin—a hundred and eighty thousand fighting men—to make war against Israel and to regain the kingdom for Rehoboam. (2Chr. 11:1)

• **스마야(2절)** : 여로보암의 선지자였던 아히아와 비견되는 르호보암의 선지자였다. 문자적으로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 ① 하나님의 일을 가짐하여 나의 명예와 자존심을 찾으려는 악한 죄성을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소서.
- ② 총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기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그가 여호와와의 율법을 버리니

역대하 12장
찬송가 216장

묵상노트

르호보암은 나라가 안정을 되찾고 힘이 커지면서 여호와와의 밭씀을 버렸습니다(1절). 이로 인해 애굽 왕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2~4절).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를 버렸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임을 선포하자, 모든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를 낮춥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겸비함을 보시고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조금 구원하셔서 유다가 시삭의 종이 되게 하여 세상 나라를 섬기게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5~8절). 결국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와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를 돌이키셔서 다 멸하지는 않게 하셨습니다(9~12절). 르호보암은 십칠 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 다스렸지만 마음을 여호와께 두지 못하고 악을 행하다가 장사되어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13~16절).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와의 율법을 버리니”라고 말씀합니다(1절).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강하여졌으면 더욱 잘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인간은 항상 일이 잘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 버리고 맙니다. 인간은 애초부터 하나님 자체에는 관심이 없이 자신이 목적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나’ 이기에 내가 잘되지 않을 때 인간은 그때만 또 간절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날마다 십자가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십자가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반드시 자신의 앞에 놓인 현실이 더 커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든 그렇지 않은 상관없이 이미 지불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 시삭(2절) : 애굽 제22대 왕조의 창립자로 B.C. 945~925년까지 다스렸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음지라(대하 12:1)

After Rehoboam's position as king was established and he had become strong, he and all Israel with him abandoned the law of the LORD. (2Chr. 12:1)

기도제목

① 이미 지불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믿고, 날마다 십자가와 관계를 맺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여호와께 부르짖고

8

토요일

르호보암이 죽고 그 아들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된 지 삼 년이 됐을 때 북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비야의 군사는 사십만 명이고, 여로보암의 군사는 팔십만 명이었습니다(1~2절). 아비야는 에브라임 산 중에 올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나라를 분열시켰음을 지적하였습니다(3~7절). 또한 자신들을 위하여 신을 만들고 여호와와 제사장인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임의로 제사장을 삼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고, 하나님을 배반했으므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음을 선포하였습니다(8~12절). 그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심으로 이스라엘의 병사 오십만 명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졌습니다(13~22절).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부터 수많은 승리의 경험이 있는 매복 작전을 택했습니다(13절). 훌륭한 작전이었습니다. 유다는 꿈쩍 없이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비결은 매복 작전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기도하면 다 된다는 것에 아닙니다. 부르짖음의 기도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그리스도의 기도는 맘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된 기도입니다. 부르짖음의 기도에는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겹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어 순종함에 이르는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대하 13:14)

Judah turned and saw that they were being attacked at both front and rear. Then they cried out to the LORD. The priests blew their trumpets(2Chr. 13:14)

역대하 13장
찬송가 549장

묵상노트

• 베엘과 그 동네(19절) : 북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이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 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아 자신을 부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소서.
-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충현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

충현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또한 충현교회의 영광은
교인 수, 건물, 탁월한 프로그램에 있지 않다.
오직 십자가의 영광뿐이다.
영원한 터가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나아질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진심으로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신다.
말씀으로 돌아가 십자가 사랑 안에서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신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신령한 예배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일예배는 1부에서 5부까지 드리지며, 5부예배는 젊은이들 중심의 예배로 드리지고 있다. 그리고 주일찬양예배를 통해 다시 한 번 은혜를 체험하며 주간에도 매일 새벽기도회와 수요 1·2부예배, 금요찬양집회를 통해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있다. 특히 매년 7회의 성찬식(홀수달 첫째 주일 및 성금요일)을 통해서 뜨거운 십자가 사랑을 느끼고 있다.

전국일꾼 양성

교회학교는 영아부에서 소망부까지 연령에 따라 20개로 나뉘어져 있다. 또한, 3개 교육위원회로 조직되어 각 부서의 특성에 따라 전담교역자와 헌신된 교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데 온 힘을 쏟으며 복음으로 하나 되고 있다. 20개 교회학교는 매 주일마다 하나로 통일된 복음 중심의 메시지가 담긴 설교를 듣고, 성경공부를 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다. 특히 각 부서의 연령과 상황에 맞는 교재를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다.

민족 복음화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러 오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특히 민족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는 세속적인 전도 방법과 물량을 동원하지 않고 168개 전도회를 중심으로 교회주변 전도에 모든 교구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또한 민족 복음화의 일환으로 전국 목회자 초청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를 권사회와 집사회의 주관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전국의 목회자들이 십자가 복음에 얼마나 목말라 있는지를 확실히 확인하였으며, 참석한 교회의 목회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지원할 것이다. 이 땅의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순간까지 전도는 계속될 것이다.

세계 선교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청소년에서부터 거동이 어려운 연로하신 어른들까지 온 교회 성도들이 단기선교에 참여하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 C.M.T.C.는 단기선교사의 영적인 훈련을 위하여 준비된 교육과정이다. 모든 총현교회 단기선교사들은 이 과정을 통하여 오직 복음만을 들고 세계로 나가는 선교사로 준비하고 있으며, 영적훈련과 언어훈련도 병행하고 있다. 국내외국인선교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예배와 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의료선교부는 성도 중에 의사, 약사, 간호사 등이 중심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하여 의료로 섬기고 있다.

이웃 사랑

말씀에 기초한 이웃 사랑, 자원봉사 속에서 나누는 친교를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있다. 또한, 오직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와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하여 봉사위원회, 자원봉사부는 물론 복지관, 기도원, 동산 및 자연장, 농원을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이웃 사랑의 열매는 더 풍성해질 것이다.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9 주일

10 월요일 ☐ 역대하 14장11 화요일 ☐ 역대하 15장12 수요일 ☐ 역대하 16장13 목요일 ☐ 역대하 17장14 금요일 ☐ 역대하 18장15 토요일 ☐ 역대하 19장

2

근거 없는 두려움

Groundless Fears

| 초점 |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히 전진하라

| 찬송 |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343장 시험 받을 때에

| 본문 | 창세기 32:7~12

⁷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⁸이르되 여기서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⁹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 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¹⁰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떼나 이루었나이다 ¹¹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¹²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기 형의 장자권을 도둑질한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를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반면 아버지 이삭은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많이 다투었습니다.

※ 장자권 문제를 두고 에서와 야곱에게 일어난 사건을 정리해 보십시오.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야곱에게 화가 났습니다(창 27:41). 그의 어머니는 야곱이 잠시 동안만 피해 있으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창 27:44), 그녀는 아들 야곱을 다시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성공한 야곱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하셨을 때 그는 부자였지만, 근거 없는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이전에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빼앗은 것 때문에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던 야곱에게 두려움으로 인해 무슨 일이 생겼는지 살펴봅시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정신 상태

야곱의 두려움은 자신의 정신 상태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창 32:7~8

야곱의 두려움은 매우 뿌리 깊은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여러 해를 지내며 집에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막았습니다. 야곱의 축복의 잔에 두려움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두려움은 그에게 만성적인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에게 권력과 부가 더해지는 만큼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 야곱의 정신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영적 생활

야곱의 두려움은 자신의 영적 생활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 야곱의 기도를 간단히 정리해 보십시오(창 32:9~12).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었지만 오히려 더욱 두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잘 보살펴 주시리라 약속하셨지만, 야곱은 계속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신실하셨지만, 야곱은 여전히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 야곱이 계속 두려움에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산 관리

야곱의 두려움은 그의 재산 관리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 두려움 때문에 영향을 받은 야곱은 재산을 어떻게 했습니까?(창 32:13~16,20).

야곱은 형 에서에게 많은 선물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두려움 때문에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께 드리지 않음으로, 결국 큰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 심각한 비극은 그리스도께 드려야 할 돈을 움켜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 물질에 대한 나의 생각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교회의 사역은 두려움 때문에 지체되어 왔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대신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항상 우선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십시오.

가족

야곱의 두려움은 자신의 가족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창 33:1~3 _____

※ 야곱이 사람들을 나누었을 때 가족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 것 같습니까?

야곱은 그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겪게 했고, 그들이 결코 잊지 못할 편애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 계산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해야 합니다.

벧전 2:9 _____

야곱과 에서와의 만남은 마침내 성사되었습니다. 그들은 포옹하며 울었습니다. 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야곱을 용서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이 가졌던 모든 두려움은 근거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두려움들도 근거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을 가져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히 진진하십시오.

※ 무엇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두려움이 올 때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계 1:17~18

| 믿음의 기도 |

- 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거 없는 두려움을 버리게 하소서.
- ② 매 순간 깨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 ③ 충현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역대하 14장
찬송가 195장

묵상노트

아비야가 죽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과 아세라 상을 찍어 없었습니다. 또한 태양상을 없애고 유다 사람들에게 여호와만 섬기며 율법을 지킬 것을 명령했습니다(1~5절). 하나님은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고, 아사는 건고한 성읍을 건축하였습니다(6~8절).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백만 명과 병거 삼백 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오자, 아사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 줄 이가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합니다(9~11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심으로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모두 죽이고, 많은 양과 낙타 등 노략한 물건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12~15절).

아사는 이 나라가 그들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모든 우상을 철폐했습니다. 무려 백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구스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도 아사 왕은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 줄 이가 없사오니(11절)”라고 부르짖습니다. 수적으로 약하고 강한 것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결과는 그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서 확연히 갈라집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의 편도, 약한 자의 편도 아니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속했는지 날마다 살펴보기 바랍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태양상(5절) : 고대 근동 지방에서 태양 숭배가 널리 유행했다는 사실은 여러 지방에 태양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사실에서 입증된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 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니 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대하 14:11)

Then Asa called to the LORD his God and said, "LORD, there is no one like you to help the powerless against the mighty. Help us, O LORD our God, for we rely on you, and in your name we have come against this vast army. O LORD, you are our God; do not let man prevail against you." (2Chr. 14:11)

기도제목

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속해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구스와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아사에게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도 너희와 함께 해 줄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실 것이며,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하십니다(1~7절). 아사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온 유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맹세하고 기뻐하였습니다(8~15절). 그는 어머니 마야가가 아세라 상을 만들자 그의 어머니마저 태후의 자리에서 폐해버릴 정도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사 왕 제삼십오 년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셨습니다(16~19절).

하나님의 영이 아사랴에게 임했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으로 기뻐했고 죄를 씻어 준 것만으로도 고마워서 눈물 흘렸던 그 사랑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찾으려고 교회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을 놓쳐버리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또 다른 신앙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고, 열두 제자는 모두 순교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거기 나사로도 거지로 인생을 끝냈지만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꿈쩍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만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지자가 왕에게 촉구하는 것이고,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촉구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역대하 15장
찬송가 269장

묵상노트

• 요란(5절) :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이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대적하여 전쟁 태세를 갖춘 상황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영이 오렛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대하 15:1)

The Spirit of God came upon Azariah son of Oded.(2Chr. 15:1)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꿈쩍 않고 하늘의 것을 더 고귀하게 여기며,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신자가 되게 하소서 ②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가 민족 복음화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시고, 참석한 교회들이 십자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역대하 16장
찬송가 190장

목상노릇

아사 왕 제삼십육 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오자 아사 왕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합니다. 아람 왕 벤하닷은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쳤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왕 바아사는 유다를 치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버렸습니다(1~6절). 선견자 하나니는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아사 왕에게 이 후에 전쟁이 있을 것을 예언하지만, 오히려 아사는 선견자를 욕에 가두고 백성 중에서 몇 사람도 학대했습니다(7~10절). 아사는 왕이 된 지 삼십구 년에 발에 병이 들었고, 사십일 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11~14절).

아사는 35년간이나 이방 신의 산당을 헐고, 우상을 부수며,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와 말씀은 준행하고 살도록 부단히 가르치며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세라의 목상을 만든 자신의 어머니마저 폐위 시킬 정도로 신실하게 여호와의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35년간의 헌신은 일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왕이 된 지 36년부터 죽기 직전인 41년까지의 5년간의 삶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사람들만 의지하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진리를 알고 실천한 왕이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사람을 의지하다가 병들어 죽고 만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 좋아서 주님만이 전부라고, 주님만이 답이라고 외치며 십자가만 바라보며 은혜를 누렸던 시절은 다 잊어버린 채 어느덧 세월이 흘러 주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십자가만 의지하고 복음만 붙들기 바랍니다. 그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 벤하닷(2절) : '허탈의 아들'이란 뜻. '하닷'은 서남아시아에서 널리 숭배된 천후 또는 폭풍의 신으로, 다메섹의 수호신이다.

여호와와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 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대하 16:9)
For the eyes of the LORD range throughout the earth to strengthen those whose hearts are fully committed to him. You have done a foolish thing, and from now on you will be at war.(2Chr. 16:9)

기도제목

① "예수님만이 답입니다"를 다시 외칠 수 있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13

목요일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아사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하나님은 유다를 그의 손에서 건고하게 하였고, 여호사밧은 더욱 신실하게 유다에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하였습니다(1~6절). 그뿐 아니라 레위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뽑아 여호와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와 유다 온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여호와와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였습니다(7~9절). 하나님은 유다 사방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셔서 여호사밧과 싸움조차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오히려 조공을 바쳐 화친하도록 하였습니다(10~11절). 여호사밧은 점점 더 강대하게 되었으며, 견고한 요새와 웅망스러운 군사들도 유다의 각 성읍들 마다 배치되었습니다(12~19절).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길로 가기 위해 여호사밧이 힘쓴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기도를 했겠습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단지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을 여호사밧이 가진 것입니다. 믿음은 힘쓰고 애쓰는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이며, 그 선물은 나를 부인함으로 더욱 풍성해집니다. 여호사밧에게 이스라엘은 자기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몸도 자기의 것이 아니고, 남은 생애도 자기의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백성도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고, 우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이 지키십니다. 내가 지키려고 할 때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대하 17:3)

The LORD was with Jehoshaphat because in his early years he walked in the ways his father David had followed. He did not consult the Baals(2Chr. 17:3)

역대하 17장
찬송가 388장

목상노트

• 여호와와의 율법책(9절) :
일반적으로 모세 오경 또는 토라를 가리킨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주님의 뜻대로 사신 주님의 교회를 내가 지키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의 재단들(유지, 동산,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시설 공사 및 양로원, 함양총현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역대하 18장
찬송가 545장

묵상노트

여호사밧은 큰 부자로 영광을 누릴 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가와 정략적인 혼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아합은 여호사밧과 우호적인 관계가 되자, 군사적인 동맹을 요청해 왔습니다(1~3절). 여호사밧은 싸움에 나가기 전에 먼저 여호와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묻기를 청했습니다(5절). 아합은 자신의 비위를 맞추어 줄 아는 거짓 선지자 400명을 더 좋아했으나 여호사밧은 아합이 싫어하는 단 한 명의 선지자 미가야의 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6~8절). 모든 선지자가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의 싸움이라고 예언할 때, 미가야는 아합이 이 싸움에서 죽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결국 아합 왕은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전쟁터에 나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9~34절).

아합은 자신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합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께서 이 싸움의 승리를 아합에게 주셨다고 선포해 주는 메시지를 듣고 기뻐하지만, 진정으로 아합이 들어야 할 메시지는 거짓 선지자 400명의 소리가 아닌, 단 한 명의 선지자 미가야의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들어야 할 소리는 칭찬의 소리, 격려의 소리,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세상의 소리를 쫓아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당장은 쓴 소리요, 당장은 고난의 메시지일 수 있어도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 **이스라엘 왕(28절)** : 구약적으로 '아합'이라고 언급하지 않은 것은 강조점이 이스라엘이 아닌 유다 왕국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므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니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대하 18:7)

The king of Israel answered Jehoshaphat, "There is still one man through whom we can inquire of the LORD, but I hate him because he never prophesies anything good about me, but always bad. He is Micaiah son of Imlah." "The king should not say that," Jehoshaphat replied. (2Chr. 18:7)

기도제목

① 당장 듣기 좋은 메시지를 따라가는 여러 마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선지가 되게 하소서. ② 복음의 요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

15

토요일

아람과의 전쟁에서 무사히 돌아온 여호사밧 왕에게 선견자 예후가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왕에게 미칠 것을 경고합니다(1~3절). 예후의 책망을 들은 여호사밧은 이참처럼 선견자에게 분을 내거나 그를 가두지 않습니다. 그는 브엘세바에서부터 예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을 시찰하고, 재판관과 관리를 세워 사람을 위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할 것을 권면합니다(4~7절). 여호사밧은 유다 전 지역에 일일이 재판관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도 재판관을 두어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미치도록 힘썼습니다(8~11절).

북이스라엘에 미가야가 있었다면 남유다에는 예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의 왕 이합은 전사하고, 여호사밧은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돌아오자마자 선견자 예후는 왕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선포합니다.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을 사용하여 모든 죄를 다 덮어주려고만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돕거나 사랑하는 것은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마 5:44)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원수,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용하게 만드는 자들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 원수는 사랑하되 내 원수, 즉 십자가의 원수는 사랑하지 마라.” 복음은 희석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싸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대하 19:2)

Jehu the seer, the son of Hanani, went out to meet him and said to the king, "Should you help the wicked and love those who hate the LORD? Because of this, the wrath of the LORD is upon you." (2Chr. 19:2)

역대하 19장
찬송가 356장

묵상노트

• **하나니(2절)** : 선지자 예후의 아버지로 아사 왕에게 예후가 내렸던 것과 같은 경고를 내렸다. 그러나 아사는 듣지 않고 그를 투옥하였다. 예후도 그의 아버지에게서 받은 교훈대로 여호사밧을 경고하였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나의 원수는 사랑하되 십자가를 무용하게 만드는 자들은 미워하게 하고, 복음만을 붙들게 하소서. ② 피택자들이 모든 혼란을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딤후 2:3)이 되게 하소서.

믿음의
 삶

사도행 2:42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매 주일이 총동원전도주일이야

오늘은 교구 총동원전도주일. 안내를 맡은 나는 오후 1시가 넘어가자 마음이 조금해져 봉사 부서를 빨리 정리하고 교구모임 장소로 향했다. 제2교육관에서 제1교육관으로 가면서 보니 각 교구 장소에서 교구 성도들이 어깨에 띠를 두르고 피켓을 들고 있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라고 인사하는 목소리가 꼭 내 귀에는 천국 문 앞에서 천사들이 기뻐 환영하는 인사의 소리로 들려와 순간, 지금 여기가 꼭 천국 같은 느낌이 들었다.

교구에 도착하니 전도사님을 비롯하여 행사를 맡은 집사님들이 분주해 보였다. 나는 좀 늦은 감이 들었지만 얼른 그 틈에 끼어 컵가에 맴돌고 있는 그 천사들의 목소리를 흉내 내어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라고 인사했다. 인도자와 새신자가 손을 꼭 잡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참 반갑고 감사한 나머지 ‘아! 매 주일 총동원전도주일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때 어디선가 가끔씩 들던 거룩한 소리가 들렸다. “매 주일이 총동원전도주일이야.” 분명 주님의 음성이었다. 나에게 왜 몰랐냐고, 왜 모르고 있냐고 나무라는 것도, 탓하는 것도 아닌 자비한 주님의 목소리였다. 늘 주님의 마음과 뜻을 듣고 알고 있음에도 게으르고 나태하여 주의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함을 진심으로 회개한다.

지형경(집사, 2교구)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16 주일

17 월요일

☐ 마가복음 1장

18 화요일

☐ 마가복음 2장

19 수요일

☐ 마가복음 3장

20 목요일

☐ 마가복음 4장

21 금요일

☐ 마가복음 5장

22 토요일

☐ 마가복음 6장

3

무덤에 가신 예수님

Jesus At The Grave

| 초점 |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라

| 찬송 |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 본문 | 요한복음 11:38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모든 사람들은 무덤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이들이 죽은 사람들을 기념하며 묘지를 방문합니다. 무덤에 오는 이들 가운데는 망자가 마침내 자유롭게 안식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았던 일들을 생각하고자 하고, 심지어 무덤을 장식함으로써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곳을 좀 더 낮게 만들어 보려 합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무덤에 오신 예수님은 다르게 행동하셨습니다.

요 11:33~35 _____

요 11:38 _____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바로 앞에 서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우리의 비통함을 아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비통함을 알고 계십니다.

요 11:11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오신 것은 그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별의 고통을 아셨기에 그들의 상한 마음과 눈물도 이해하셨습니다.

요 11:25~26

영원한 생명, 천국, 부활이 약속되어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슬퍼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눈물은 정서적인 건강을 위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안전 밸브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해하셨기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애통하며 우셨던 것입니다.

계 21:4

※ 나의 비통함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 보십시오.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십니다.

※ 마가복음 1:40~42, 8:22~25 ; 요한복음 5:5~9 말씀에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슬픔을 함께 하시려 오늘 여기 계십니다. 바로 십자가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며, 또한 죽어가는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눅 23:42~43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돌보사 고치실 수 있는 주님께 여러분의 슬픔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사 42:3

사 61:3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신다

예수님은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요 11:39~40

예수님은 큰 소리로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 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한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요 11:43~44).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렇듯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히 10:23~25

벧전 1:21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만일 여러분 자신은 물론 전문가들조차 해결하거나 치료할 수 없는 것이 있어 근심하고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고난의 때에 반드시 참된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십시오.

※ 고난 중에 소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벧전 5:7

| 믿음의 기도 |

- 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소서.
- ②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 ③ 중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음부 | 오고스 | 도수 |

부속 | 오고스 | 도수 |

부속 | 오고스 | 도수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마가복음 1장
찬송가 251장

묵상노트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1절)이라는 선언으로 출발합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 나타난 독특한 특징은 바로 ‘고난당하시는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더욱 초점이 모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생애 전반을 다루기보다, 다만 공생애 기간과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에 더욱 집중한다는 점에서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당시 로마제국의 핍박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초대 교인들에게 참된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도록, 그리하여 그 고난을 이기도록 쓰여졌다는 사실도 이러한 마가복음의 독특한 특징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막연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이, 전혀 삶의 변화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닙니다. 마가복음의 첫 장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소생시키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얻게 한다는 엄청난 복음의 능력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능력은 결코 강함으로 드러나지 않고, 세속적 힘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고난당하시는 모습으로 드러나며, 십자가를 지시는 나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자의 믿음 생활은 결코 ‘인간적’ 승리가 아닙니다. 다만 ‘영적’ 승리이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승리이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승리인 것입니다.

• 시험(13절) : 헬라어 ‘페이라조’로서 ‘유혹하다’의 일반적인 뜻을 담고 있다. 마귀의 입장에서 이 시험은 ‘테스트’(test)이고 ‘유혹’(temptation)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마막 1:1)

The beginning of the gospel about Jesus Christ, the Son of God. (Mk. 1:1)

기도제목

①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18

화요일

마가복음 2장

찬송가 282장

묵상노트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마 1:21)로 오셨으며, 동시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막 10:45)로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오심을 가리켜 ‘의인’을 부르러 오미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셨음을 강하게 언급하셨습니다 (17절). 그러기에 이 장의 시작은 중풍병자의 ‘죄 사함’에 관한 내용으로 출발합니다(1~12절). 또한 당시 사람들의 편견의 대상이었던 세관인 알패오의 아들 레위 를 부르시는 장면도 등장합니다(13~17절).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상당히 급진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킬 만한 일이었음에 틀림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꺼려하는 죄인을 부르시는 모습은 더욱 큰 파장을 부르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현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든지 아니면 소극적으로 외면하든지 하며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극구 부인합니다. 이것은 분명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만약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위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취급하는 아주 무례하고 죄악 된 짓임을 기억해야 합니다(요일 1:8~10). 그러나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용서가 있음을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막 2:17)

On hearing this, Jesus said to them, "It is not the healthy who need a doctor, but the sick. I have not come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Mk. 2:17)

• **신성모독(7절)**: 개역성경에 ‘침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헬라어는 볼라스페메오로서, 해나침의 권능과 위엄을 더럽히고 모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홀로 처죽이론 하였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 ① 나를 믿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② 총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3장
찬송가 149장

묵상노트

예수께서는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막 2:23~3:6). 이 사실은 분명 엄청난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언이 당시 유대인들이 엄격하게 지켜오던 모세율법에 상당히 위배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친 예수님의 행위를 트집 잡아 박해하며 죽이고자 했습니다(요 5:16~18). 그럼에도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안식일의 주인 됨을 선언하셨고, 외치셨으며,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 함은 우리가 믿어야 할 신앙의 대상이 바로 주님이시고, 경배하고 예배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일본질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중보자 되시고 구원의 근거되시며 신앙의 대상이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를 믿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그분께 행복함이 곧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 오늘을 사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의 현 상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경배의 대상으로서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단지 종교적 감정에 취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내가 만든 신앙의 어떤 대상에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 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이며 이 믿음은 십자가의 죽음에 영원한 통치가 있음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는 참된 신자가 되길 바랍니다.

• 손 마른(1절) : '손이 마르는 병'은 팔이 사서히 말라감으로써 발육이 중지되고 근육이 오그라드는 중풍병의 일종을 의미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막 3:35)
Whoever does God's will is my brother and sister and mother. (Mk. 3:35)

기도제목

①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을 복음의 나팔로만 사용해 주시고, 십자가만을 전하는 후임 당회장이 청빙되도록 교회 위에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20

목요일

예수께서는 공생애 기간 동안에 천국의 말씀을 전하실 때, 대체로 비유의 말씀으로 설교하셨고, 그 비유를 풀어 설명해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3~20절), '등경 위의 등불 비유' (21~25절), 그리고 '자라나는 씨 비유' (26~29절)와 '겨자씨 비유' (30~33절)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심지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시며 비유에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34절).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왜 예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니"(11절). 예수님께서서는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나 '외인', 즉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결코 알아들을 수 없음을 지시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 비유로 하셔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가린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들을 수 있다는 것과 들을 수 없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 10:17).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비유의 속뜻을 압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히 11:6). 믿음이 없이는 결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요 10:3~4). 우리의 삶의 본질과 목적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성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4장
찬송가 357장

묵상노트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막 4:9)

Then Jesus said, "He who has ears to hear, let him hear." (Mk 4:9)

• 해아림(24절) : 공동번역은 '달아주는 만큼', 새번역은 '되여주는 만큼'으로 번역하고 있다. 즉 남에게 한 것만큼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의미이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 깊이 경험토록 성령의 조명하심을 비취 주소서. ② 총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5장
찬송가 162장

묵상노트

세 가지의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군대'라는 이름을 가진 귀신에 시달리고 있는 자를 고치시는 이야기(1~20절)와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을 고쳐 주시는 이야기(25~34절), 아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이야기(21~43절)입니다. 왜 인간은 병과 죽음의 고통 속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사망의 저주 아래 인간이 놓이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사망 아래 놓이게 되었고, 동시에 필연적으로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이 세 사건은 모두 죄 아래 놓인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히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기적은 단지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회복과 구원을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달리다굴' 사건은 더욱 극적으로 구원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죽음은 생명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명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아이로의 딸의 죽음은 죄로 인한 인간의 영적 끝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굴!" 마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외치시며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와 같이, 예수께서는 이 엄청난 선언을 통해 새로운 창조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죽은 그녀는 그 음성들을 듣고 마치 그 선언을 기다렸다는 듯, 진실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참된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참된 신자가 되길 바랍니다.

• **달리다굴(41절)** : 1세기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두 언어가 사용되었다. 즉 헬라어와 아람어였는데, '달리다굴'은 아람어에 속했고 그 뜻은 '소녀아 일어나라'라는 의미이다. 당시에 팔레스틴 사람들은 두 언어를 종종 번갈아 사용하곤 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글과 한자를 겸하여 사용하듯이 말이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굴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아 일어나라 하심이라(막 5:41)

He took her by the hand and said to her, "Talitha kourm" (which means, "Little girl, I say to you, get up!"). (Mk. 5:41)

기도제목

- 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영생의 기쁨을 더욱 깊이 맛보게 하소서.
- ② 예루살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배척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22

토요일

예수께서는 자신의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배척을 당하신 이유는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이 너무나 놀라웠고, 그의 권능이 남다르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는 이로 인해 핍박을 받았고, 고향 사람들과부터 따돌림과 미움, 적대적 편찬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능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향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고 그 모든 것을 인정치 않았습니다(4절).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믿지 않았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과 그가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결코 인정치 않았고, 믿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3절). 그들 눈에 예수는 단지 ‘말 잘하는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자신들의 전통과 인간적 위계질서에 따르면 예수라는 젊은 목수는 자신들의 눈에 결코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에 혐오하는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심도 보이고 있지만 우리 또한 너무나 많은 경우 종교적 전통과 유교적 위계질서에 사로잡혀 참된 복음의 실체를 놓쳐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시작은 복음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과 결과는 여지없이 ‘인간적’이 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현재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혹 주님을 배척하는 길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막 6:4)

Jesus said to them, “Only in his hometown, among his relatives and in his own house is a prophet without honor.”(Mk. 6:4)

마가복음 6장
찬송가 290장

묵상노트

• **이백 데나리온(37절)**: 데나리온은 팔레스틴에서 사용된 기본적인 로마 은화로써, 한 데나리온은 농장 노동자들의 평균 하루 품삯이었다. 따라서 이백 데나리온은 한 남성의 8개월분에 해당하는 임금에 된다. 상당히 큰 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종교적 전통이 아닌 참된 복음의 말씀의 깊이를 더욱 깨닫게 하소서. ② 심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제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제사는 우상 숭배 이다’

제사는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된다. 제사는 죽은 자에 대한 신앙이요, 결과적으로 죽은 자에 대한 예배가 된다. 그러므로 제사가 조상 숭배라면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이다. 유교는 원래 내세나 구원, 영생도 없는 현실 중심적이다. 공자는 영혼 불멸이나 내세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았다. 그런데 유교 전통이 무속적인 제사와 기존의 불교가 혼합되면서 종교적인 신앙으로 변질된 것이다. 더러는 조상 제사가 왜 나쁘냐고 반발하는 사람도 있다. 후손 된 도리로서 정성을 다해 음식을 차려놓고 예를 표하는 것을 왜 나쁘냐고 하느냐 한다. 그러나 성경에는 제사 대상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라고 말씀한다고 전 10:20). 조상에 대한 제사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귀신을 불러들이는 일이요, 결국에는 망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세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영적 세계로 들어간다고 말씀한다. 죽는 즉시 천국에 아니면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예수를 믿고 죽은 영혼은 천국에 가고, 믿지 않고 죽은 영혼은 지옥에 간다. 그러므로 천국이나 지옥에 들어간 영혼은 거기서 나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나 우주에 떠돌아다닐 수 없으며, 우리에게 좋은 영향이나 어떤 나쁜 영향도 미칠 수 없다(눅 16:19~31). 그러므로 조상신이 자손들을 도와주거나 또 해를 끼칠 수 없다. 천국에 간 영혼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최고의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위해 이 세상의 어떤 음식도 대접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또한 지옥에 들어간 영혼은 손가락 끝의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으며, 불 가운데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눅 16:23~26). 한 번 죽고 나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뿐이다(히 9:27). 그러므로 육체를 벗어난 상태에 있는 조상들에게 제사 음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제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영광을 도둑질하고 인간을 불행케 하려는 마귀의 고도의 계략이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요일 5:21).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23 주일

24 월요일

☐ 마가복음 7장

25 화요일

☐ 마가복음 8장

26 수요일

☐ 마가복음 9장

27 목요일

☐ 마가복음 10장

28 금요일

☐ 마가복음 11장

29 토요일

☐ 마가복음 12장

4

감옥에서의 부흥

The Prison Revival

| 초점 |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로 부흥하라

| 찬송 |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 본문 | 사도행전 16:25~34

⁽²⁵⁾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²⁶⁾이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²⁷⁾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²⁸⁾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²⁹⁾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³⁰⁾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³¹⁾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³²⁾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³³⁾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³⁴⁾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 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부흥 아니면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은 바울을 사랑했지만, 거부한 사람들은 대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고후 2:15~16

바울이 감옥에서는 부흥을 경험하고 성전에서는 오히려 소란이 일었다는 점이 조금 이상해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한 날에 소란과 부흥을 다 경험했습니다. 우선 소란은 시장에서 일어났으며, 그 뒤 감옥 안의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부흥은 그 성격상 특이한 때와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바울이 갇혔던 감옥에서 시작된 부흥의 핵심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또한 부흥된 교회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참된 기도

감옥에서의 부흥은 참된 기도를 드리는 두 명의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행 16:25 _____

시련은 우리를 무릎 꿇도록 이끄는 축복이기에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모질게 매를 맞은 후에, 바울과 실라의 손과 발은 차꼬에 매였습니다. 그들이 처한 모든 상황은 최악이었지만, 그들은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기도합니다!

롬 15:9 _____

행 16:16 _____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했습니다. 이 때는 그들에게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을지는 모르나, 기도하기에는 결코 어둡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항상 부흥의 기초가 되며,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사역에는 기도의 무릎이 숨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간구했습니다(왕상 18:36,39).

신실한 자세

감옥에서의 부흥에는 신실한 자세를 가진 두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행 16:25 /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고 하나님을 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더리를 치지 않았고, 오히려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했다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그들이 찬양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는 자신들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선교 지시에 따랐습니다(행 16:9~10). 늘 그래왔듯이, 루디아를 만났을 때도 그들은 영혼 구원을 경험했습니다(행 16:14~15). 그들은 또한 여종에게 있던 귀신을 쫓아낸 후에 심한 핍박도 받았습니다(행 16:23).

※ 어려움 중에도 바울과 실라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골 3:16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의 가치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이 중요성을 깨달아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찬양을 시작하십시오.

합당한 자리

감옥에서의 부흥에는 합당한 자리에 있었던 두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행 16:26

바울과 실라 그리고 모든 죄수들은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몰랐던 그 곳의 간수는 모든 죄수들이 탈옥했다는 두려움으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 때 바울은 그에게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행 16:28)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는 합당합니다.

※ 주님의 뜻에 합당한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복음의 메시지

감옥에서의 부흥에는 올바른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던 두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행 16:30~31

간수는 중요한 질문을 하였고, 바울과 실라는 올바른 답변을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이 정확한 대답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구원에 대해서 물을 때 올바른 대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간수와 그의 가족은 놀라운 개종과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의 부흥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진실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 더 많은 기도와 찬양을 드리기 시작하겠습니까?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합당한 자세를 가질 것을 약속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기에 여러분이 어디에 있건 그곳이 합당한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찾는 자에게 올바르게 대답할 준비를 하겠습니까? 세상의 환경과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로 부흥하십시오.

합 3:2 _____

행 3:19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십자가 은혜로 부흥하게 하소서.
- ② 무슨 일을 만나든지 십자가를 붙들며, 믿음의 길을 가게 하소서.
- ③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구역(팀)이 되게 하소서.

계명의 원천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7장
찬송가 505장

묵상노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찾아와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5절). 그들의 질문은 종교적 전통에 근거하여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불경한 행동에 관하여 트집을 잡고 해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의도를 모두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에 대하여 말씀하시며(6~7절). 그들을 다음과 같이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8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신자에게 있어서 마땅한 삶의 규범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원천이요, 근거는 아닙니다. 믿음은 계명을 지키고 아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 지도자들은 이 근본적인 진리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인간적 측면에서 계명을 지켰느냐 지키지 아니하였느냐에 몰두하였던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들이 지키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닙니다. 단지 자기 자신의 종교적 명분을 쌓기 위한 ‘계명’에 지날 뿐이었습니다. 계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것이며, 단지 인간의 종교적 열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주님을 의지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24~30절)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명의 원천이요, 근거요, 본질인 것입니다.

• 장로들의 전통(3절) :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 유명한 유대 랍비들이 고대의 전승 자료들을 중심으로 하여 세세한 생활규칙들을 정비하고 집대성하여 만든 구전 율법을 총칭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막 7:8)

You have let go of the commands of God and are holding on to the traditions of men. (Mk. 7:8)

기도제목

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이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시대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

25

화요일

떡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로 약 사천 명을 먹이시고 일곱 광주리를 남기시는 기적을 말씀합니다(1~10절). 이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머물며 계속해서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 그리고 표적을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환난하는 태도로 예수께 나아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이것은 분명 음모가 있는 요구였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바리새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많은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신기한 일을 행하는 어떤 선지자 중의 한 사람 정도라면 알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베드로의 고백(29절)이 등장합니다. 그 고백은 어둠 속을 환하게 비추는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세상적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요나의 표적'만을 보이실 뿐이었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곧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었습니다(31절). 그 십자가의 표적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자신의 신앙고백이 무색할 정도로 주님의 십자가의 표적을 거부하고 항변할 정도였습니다(32절). 이것이 인간의 죄된 한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시대의 표적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이 신자의 길임에도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 길을 마다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의 찬란한 영광의 길을 구하고 있습니까?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막 8:12)

He sighed deeply and said, "Why does this generation ask for a miraculous sign? I tell you the truth, no sign will be given to it." (Mk. 8:12)

마가복음 8장
찬송가 84장

묵상노트

• **참사(6절)** : 헬리어 '유카리스테오'이며 '감사하다'의 뜻을 가졌다. 감사는 참 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당연한 마음의 상태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루어 주신 일에 대한 올바른 신앙적 태도이기 때문이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세상의 표적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지향하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변화되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9장
찬송가 92장

묵상노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서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3절). 더욱이 구약을 대표하는 엘리야와 모세를 대동하시며 말씀을 나누시는 모습은 참으로 신기함을 넘어서서 신비에 가까운 이야기기임에 틀림없습니다(4절).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이장에 등장하는 변화산의 모습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 인간의 죄를 위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즉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참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신 신성을 포기하시거나 그 신성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며 동시에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대속제물로서의 어린 양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성인군자와 같은 한낱 탁월한 인간 정도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참 인간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께 나의 전 존재와 전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하며 항복하는 것이 그분을 향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참 인간이지만 동시에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어야 할 구주이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형(2절): 헬리어 '메타 모르포시스'로서, 단순한 변형을 의미하지 않고 육의 몸에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하는 일을 의미한다. 즉 본질의 변화를 가리킨다. 예수께서는 '진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으로 존재하신다. 이것은 예수께서 참 인간과 참 신성을 지니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의미한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막 9:2)

After six days Jesus took Peter, James and John with him and led them up a high mountain, where they were all alone. There he was transfigured before them. (Mk. 9:2)

기도제목

- 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②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가 민족 복음화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시고, 참석한 교회들이 십자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27

목요일

예수께서는 “누가 크냐?”의 논쟁에 관하여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 사람의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막 9:33~35). 또한 어린 아이 하나를 데리시고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막 9:36~37). 이러한 배경 속에서 마가복음 10장은 이혼에 대한 가르침(1~12절), 어린 아이들을 들어 설명하시는 천국 복음 이야기(13~16절), 부자 청년 이야기(17~31절), 그리고 맹인 바디매오가 눈을 뜬 이적 이야기(46~52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이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의 신 개념은 결국 신을 섬기는 의미이기보다는 인간이 신을 부리고 이용하는, 마치 악세사리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다분합니다. 그러기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누가 크냐?’의 문제를 논의하게 되고, 동시에 영생을 얻는 것도 내가 잘해서 얻는 ‘보상’의 개념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당당하게 공적을 쌓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함이 인간의 죄 된 본성의 특징입니다. 특히 부자 청년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천국에 가기 위해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생은 선물이며 은혜입니다(엡 2:8~9).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다른 공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그 공로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은혜의 선물을 증언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기 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5)

For even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Mk. 10:45)

마가복음 10장
찬송가 508장

묵상노트

• 대속물(45절) : 헬라어 ‘뤼트론’으로서, 해방과 자유를 위한 대가(값)를 의미한다. 즉 노예나 포로민들을 자신들의 속박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기 위해 돈을 지불해 준다는 것을 가리킨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 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의 복음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 ② 충현교회의 재단들(유지, 동산,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시설 공사 및 양로원, 함양충현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1장
찬송가 258장

묵상노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이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1~10절). 이 사건은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이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슥 9:9).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또한 모든 자들의 죄의 구속을 위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의 예루살렘 입성은 너무나 초라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것도 단지 ‘나귀 새끼’를 타고서 말입니다. 왕으로서의 장엄하고 웅장한 행렬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는 이러한 ‘초라한 행차’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우리는 보다 더 큰 진리의 빛으로 이 사건의 궁극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빌 2:6~8). 왕이신 그분은 세상의 왕처럼 군림함으로 통치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 주시는 희생양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막 10:45). 세상의 권위에 늘 관심이 많았던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막 11:27~28)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완전히 죽임으로써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결코 약해서도, 힘이 없어서도,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고난이 곧 우리의 구원입니다.

• 나귀 새끼(2절) : 유대의 재래동물로서, 로마의 군마와는 대비되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막 11:10)

“Blessed is the coming kingdom of our father David!” “Hosanna in the highest!” (Mk. 11:10)

기도제목

① 자신을 낮추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만을 붙드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 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29

토요일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 포도원을 잠시 맡아서 농사를 짓게 된 농부들은 열심히 일하여 합당한 소출을 자신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떠난 주인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그 주인은 자신의 정당한 소출을 받기 위해 한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심히 때려 보냈습니다. 주인은 두 번째로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은 그마저도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습니다. 주인은 세 번째로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을 죽였습니다. 주인은 계속해서 종들을 보냈으나 헛수고였습니다. 이제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아들은 존대하리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이 상속자를 죽이면 포도원이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주인의 아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농부들이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을 잡아 죽였듯이, 우리 주님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의해 버림을 받고 꺾박을 받으며 십자가 형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곧 건축자들이 버린 돌, 쓸모없다고 내어 버린 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돌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집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주춧돌’이 된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으나, 그분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왕, 바로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고 진리 중에 진리가 되시며 생명의 근원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믿음의 주인이시고 주춧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랑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막 12:29~31) 주님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막 12:10)

Haven't you read this scripture: 'The stone the builders rejected has become the capstone'(Mk. 12:10)

마가복음 12장
찬송가 311장

묵상노트

•비유(절) : 헬라어 ‘파라볼레’로서, ‘나란히 놓음’이란 뜻을 가졌다. 말하는 자가 강조하려는 논점을 일상생활의 낮은 상황으로 빗대어 설명하는 수사법의 일종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말하는 자는 듣는 청중들을 쉽게 납득시킬 수 있다.

기도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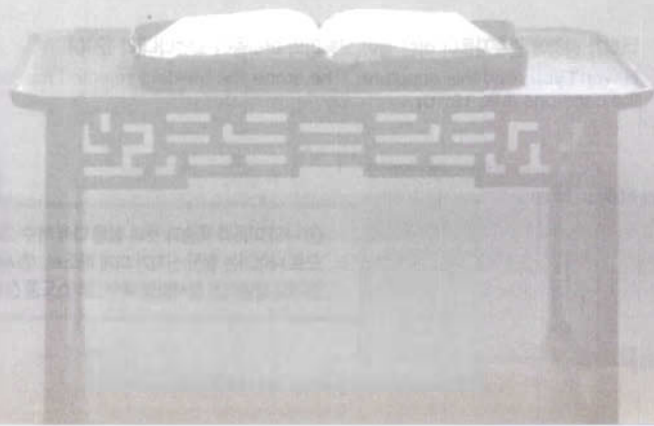
기도제목

① 나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하소서. ②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참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추석이 되게 하소서.



십자가의 복음 을

전하는 추석 명절





추석(중추절)은 농사를 지은 후 감사의 축제로 음력 8월 한가위를 맞이하여 행하는 한민족의 명절입니다. 그러나 추석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냥 즐겁고 감사할 수 있는 날만은 아닙니다. 이는 추석의 감사의 대상이 조상이나 우상들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벧전 4:3).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삶은 영원토록 고통뿐이기 때문입니다(고전 15:19).

구원과 영생을 보증하는 생명의 복음을 이번 추석에 함께 할 가족들에게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 갈등이 있겠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눅 12:51~53). 조롱과 핍박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지금 당장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이 이루어 가실 선한 역사를 소망할 때 우리는 진실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지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빌 1:20).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30 주일

1 월요일

☐ 역대하 20장

2 화요일

☐ 역대하 21장

3 수요일

☐ 역대하 22장

4 목요일

☐ 역대하 23장

5 금요일

☐ 역대하 24장

6 토요일

☐ 역대하 25장

5

벨릭스 앞의 바울

Paul Before Felix

| 초점 |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 찬송 |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 본문 | 사도행전 24:10-23

“총독이 바울에게 버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전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¹⁰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¹¹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냐 회당 또는 사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¹²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¹³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¹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¹⁵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¹⁶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¹⁷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¹⁸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¹⁹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²⁰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심문을 받는다고 할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²¹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저결하리라 하고²²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바울의 동역자들은 성령님께서 바울을 어디로 이끌어가실지 알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바울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로잡힐 것임을 알았음에도,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행 20:22~23 _____

행 21:4 _____

행 21:11~13 _____

바울의 친구들의 충고는 틀렸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야만 하며, 믿음의 친구들은 주님의 뜻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으며, 자신이 개종했음을 유대인들에게 말함으로 핍박받고 체포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에 근거해 상소함으로 가이사랴의 로마 총독인 펠릭스 앞에 섰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바울의 고발자

바울의 고발자들도 변호사와 함께 벨릭스 앞으로 왔습니다.

행 24:1

이 장로들과 변호사는 하나님보다 벨릭스를 더 두려워했습니다(행 24:2~3). 여러분은 그들이 벨릭스를 찬양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변호사 더둘로는 바울의 죄목을 벨릭스에게 말했습니다(행 24:5~6). 때때로 신자들은 예수님이 그러셨듯, 부당하게 고발 당할 수 있음을 예상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 15:20~21

신자인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길로 가야만 합니다. 흥미롭게도, 그들이 고발한 바울의 죄목 중 한 가지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거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딤후 3:12). 여러분은 최근에 그리스도로 인해 핍박받은 적이 있습니까?

바울의 대답

바울은 고발자들에게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행 24:10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용기를 잃어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을 부당하게 고소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고발한 자들에게 억울해 하지만, 바울은 십자가를 졌습니다. 바울은 고발자들에게 자신 있게 대답했을 뿐만 아니라, 진실되게 답변했습니다.

※ 바울의 답변을 정리해 보십시오(행 24:11~15).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앙을 고백하기 위함이었지, 소란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진실된 대답으로 인해 고발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해명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

바울은 벨릭스에게 자신의 삶의 목적을 나누었습니다.

행 24:16~18

행 24:21

바울의 소망은 하나님과는 물론 사람과도 지속적으로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벨릭스가 부활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롬 10:9). 그는 벨릭스와 벨릭스의 아내에게 복음을 자세히 설명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있는 것이 벨릭스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행 24:24

※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주 예수 안에서 대담하고도 견고하게 고발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는 그들의 거짓 고발에 대해 자신 있고 진실되게 대답했습니다. 로마 총독은 복음에 대한 최고의 설명을 들었고, 그것을 거절한 것은 그가 내렸던 최악의 결정이었습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 기회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 들려진 복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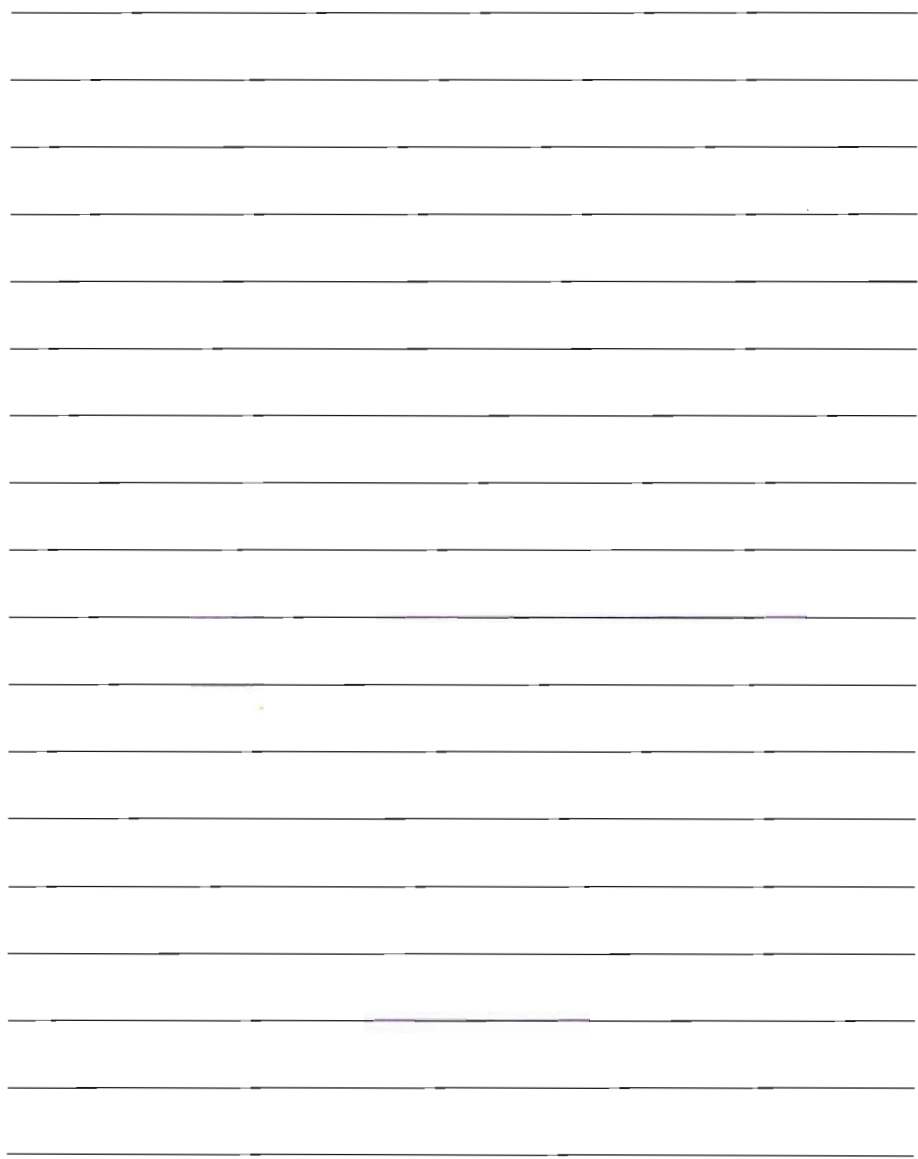
고후 6:2 _____

계 2:21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 ② 매 순간 깨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 ③ 총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에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 <충현의 만나>를 통해 매일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주간충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 552-8200(# 342, 348) / E-mail. psalms1715@naver.com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12년 9월

Copyright© 2012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진홍용

집필진 | 박만복 문성수 양재웅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